

5월 서울아트선재센터서 5·18 유공자들이 찍은 작품 전시



정철 작 '구도청 회화나무'



이중우 작 '망월동 구묘역'

서울서 털어놓는 '그 날'의 아픔과 치유

5·18 민중항쟁 유공자들이 5·18과 관련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사진이 오는 5월 서울에서 전시된다.

전시에서 참여하는 유공자들은 지난해 12월 10~20일 세계인권선언 65주년을 기념해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강용주) 주관으로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오월 광주, 빛을 들이다'전에 참여했던 순수 아마추어들이다.

13일 광주트라우마센터 등에 따르면 5·18 민중항쟁 34주년을 맞아 오는 5월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5·18 민중항쟁 유공자들이 찍은 사진을 전시하기 위해 아트

다. 이들은 지난해 '오월 광주, 빛을 들이다'전에서 모두 100여 점의 작품을 '5·18의 기억'과 '자기치유'라는 두 개의 소주제로 나눠 전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80년 5월을 겪으면서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다. 당시 공수부대원들에게 붙잡혀 옛 상무대 영창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고초와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슬픔을 겪었다.

고문 후유증과 그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는 평생 그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들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진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다.

프로그램은 일간지 사진기자로 일하기도 했던 사진작가 임종진씨가 진행했다. 임씨는 작품활동과 함께 현재 사진 대안공간인 '달팽이 사진공간'을 운영하면서 사진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임씨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유공자들은 옛 상무대 영창의 모습을 담기도 했고, 망월동 구 묘역과 전남도청, 전일빌딩 등 80년 5월의 아픔이 묻어 있는 장소의 흔적을 더듬기도 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담은 이도 있다.

당시 전시에 참여했던 한 유공자는 "사진을 통해 그날을 다시 마주하면서 나를 다시 찾게 되고, 마음의 평정도 찾았다"고 말했다.

임씨는 "사진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34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유공자) 안에 내재돼 있던 실질적인 트라우마나 아픈 상처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며 "처음에는 내적인 상처들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깊고, 단단해져서 이런 부분을 털어내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아픔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트라우마센터 '사진 치유' 참여 유공자 10여명 전남도청 등 80년 5·18 흔적 담으며 상처 극복

선재센터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아트선재센터는 김선정 아시아문화정보원 예술감독이 전시 기획을 맡고 있는 문화공간으로, 이번에 열린 예정인 전시도 5·18에 대한 김 감독의 관심이 크게 작용했다. 김 감독은 지난 2012년 열린 제9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으면서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김 감독은 "강유주 센터장과 그동안 지역에서 국한돼 열린 5·18 기념행사와 광주 정신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모으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광주트라우마센터의 활동도 서울 등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에는 김광수·김중현·박시영·이중우·정철·정홍섭·조양배·최용식·황의수씨 등 지난해 참여했던 유공자들 비롯해 모두 10여명 내·외의 유공자들이 참여할 예정이



정철 작 '11월도 보고 있을까' 중 일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로 액운 날려요

부럼깨기·도깨비 가면놀이...광주박물관 등 곳곳 행사 풍성

갑오년 새해 정월대보름을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은 14일 전시실 앞마당에서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제기차기, 팽이치기, 족마타기, 투호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오후 2~4시에는 '부럼깨기', '귀밝이술 나누기', '인절미 시식' 등 행사가 열린다.

체험학습실에서는 나주문화회관 동아리가 오카리나 연주를 들려주고, 가족 대항 윷놀이 우승자에게는 기념품이 주어진다. 문의 061-330-7804.

아시아문화협동조합과 (사)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14일 오후 5시30분 광주 원로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풍물패가 총장로 일대를 순회하는 지신밟기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 발전을 기원하는 대보름맞이 차레 지내기, 국악 공연, 광주 원로들의 신년 덕담, 음식 나눠먹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총장로의 옛 모습을 기

록한 사진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228-9968.

광주 전통문화관에서는 15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판소리 동편제 보유자 정춘실 선생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춘향가' 공연이 펼쳐진다.

16일 오후 3시 너덜마당에서는 전통공연예술센터 단원들과 함께 풍년과 가족의 화합·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체험마당을 펼친다.

관람객들의 복을 빌어주는 축원덕담 '비나리', 도깨비가면을 쓰고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도깨비가면놀이',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벽사진경 소원 걸개 만들기' 등 대보름맞이 세시풍속을 즐길 수 있다.

선조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무를 어귀에 세웠던 솃대를 가족과 함께 만들어보는 이색 체험도 할 수 있다. 062-232-150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봄이 오는 길목 '소월의 노래'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 오늘 호신대 공연

소월(김정식)의 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다. 특히 시인의 작품에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부친 노래들이 많다. '진달래꽃', '엄마야 누나야' 등은 안성현·김동진 등 유명 작곡가들이 잇따라 곡을 만들었다.

한달에 한번(매주 두번째 주 금요일)씩 모여 가곡을 함께 부르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회장 황선옥)가 '소월의 노래'를 주제로 2월 행사를 준비했다. 14일 오후 7시 30분 호남신학대학교 티브라운 8층.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故) 정희갑 교수의 '진달래꽃'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마련한다.

소월의 대표작인 '엄마야 누나야'는 안성현과 김광수 작곡가 작품을 함께 부르며 '옛이야기', '풀따기' 등



을 노래한다. 회원 김종석씨와 이현경씨가 정희갑 곡 '진달래꽃'과 김동진 곡 '못잊어'를 부르며 특별 연주로 테너 이대형의 '초혼'과 소프라노 심옥희의 김동진 곡 '진달래꽃'을 감상한다. 최해훈씨는 소월의 대표시 '초혼'을 낭송한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다시 만나는 뮤지컬 '빛깔 아리랑'

5월 23~25일 광주문화회관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주제공연 뮤지컬 '빛깔 아리랑(예술감독 박윤모)'의 앙코르 공연이 확정됐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립극단은 지난해 선보였던 창작뮤지컬 '빛깔 아리랑'이 제3회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주제공연으로 5월 23~2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총 4회 상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2회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주제공연으로 선보인 '빛깔 아리랑'은 굴곡의 근현대사를 운眸으로 살아낸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이야기한 작품이다.

주·조연 및 앙상블 배역의 오디션은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3월 2일까지 접수를 받고, 5일 오디션을 실시한다. 문의 062-511-2759.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창업 32주년 KJB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동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7), 2008년(27), 2010년(37), 2012년(47), 2014년(57)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GRAND OPEN **BONHEUR** THE HOTEL